



# “동물적 감각 키우려고 계속 뛰었다”

안성기

추적 스릴러 영화 '사냥'으로 돌아오는 배우 안성기(64·사진)는 “동물적 감각을 지닌 사냥꾼을 연기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던져서 뛰고 또 뛰었다”고 말했다.

안성기는 30일 광주구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 '사냥'에 대해 “배우로서 피를 끓게 한 시나리오라고 고생할 것을 알면서 출연을 결정했다”며 배역과 촬영 뒷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내달 개봉하는 '사냥'은 산에서 우연히 발견된 금맥을 독차지하려는 정체불명의 연사들과 이를 목격한 트라우마를 지닌 인물, 산골 소녀 사이에 하룻밤 동안 벌어지는 숨 막히는 추격전을 통해 탐욕과 죄책감 등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안성기가 극의 중심인 '기성' 역을 맡았고 조진웅이 광기에 물들어가려는 연사 무리의 우두머리 '동근'으로 분해 기성과 대

립한다. 한예리는 약간 모자라지만 순박한 산골 소녀로 기성과 함께 연사들에게 쫓기는 '양순'을, 손현주는 기성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경찰관 '손반장'을,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 등으로 주목받은 권윤은 연사들의 자금관리책 '맹실장'을 각각 연기한다.

모범적인 신사 이미지의 '국민배우' 안성기는 15년 전 막장 붕괴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비밀을 간직한 채 사냥에 매진하는 '기성'으로 변신한다. 안성기는 “‘기성’은 과거 사고의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리는 과거가 있는 인물로 우연히 한 사건을 보게 되고 추격전에 휩쓸린다”며 “산에 오려 머무른 사람이라 인간의 내세보다는 동물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인간을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했고 그래서 모든 걸 던지고 맞닥뜨렸다”

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산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힘든 촬영 내내 젊은 후배들이 허를 내두를 정도의 강인한 체력과 적응력을 자랑했다. 배우 한예리를 업고 뛰는 장면도 가볍하게 해내고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가 지쳐 나가떨어진 휴식시간에는 더덕을 캐거나 밤을 주우러 다녔다.

안성기는 “몸을 좀 사렸어야 했는데 100%를 다해서 주변 배우들한테 미움을 산 것 같다”며 “촬영하면서 목디스크가 심해지기도 했는데 배우 한예리의 몸무게가 가벼워 업고 뛰는데 무리가 없었다. 정말 고맙다”고 털어놓았다.

함께 지리한 후배 배우들은 대선배 안성기의 이런 투혼에 감탄과 존경을 보였다. 조진웅은 “다들 토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안 선배는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다.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다”고

## 내달 개봉 '사냥' 사냥꾼 변신 숨 막히는 추격전 위해 투혼

했다.

손현주는 안성기를 두고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산에서 울막을 짓고 사는 사람 같았다. 국민배우라는 호칭이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다”고 했고, 한예리도 “함께 뛰어다니는 장면이 많은데 안 선배가 너무 강인한 모습에서 지치려야 지칠 수가 없었다”고 돌아왔다.

'사냥'을 연출한 이우철 감독은 “안성기 씨가 주역 배우 가운데 가장 고령이어서 걱정을 한 것이 허무할 정도였다. 촬영하다 보면 열락없는 심마니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이 영화는 추적 스릴러로 긴박한 액션도 있지만, 드라마 아래에 깔린 각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기성’이 가진 트라우마 등 감정 기저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습뉴스

## “가요 순위제 폐지하라”

집계 오류·사재기 논란 등 과열에 시달

가요 프로그램 순위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KBS 2TV '뮤직뱅크'가 지난 27일 생방송에서 담당자 실수로 음반 판매량 집계 오류가 있었다며 1위가 AOA에서 트와이스로 변경됐다고 정정 발표를 하면서다.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이 오류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순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가요 프로그램의 순위제 논란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상파와 케이블채널의 가요 프로그램마다 집계 방식이 다르다보니 1위도 제각각이어서 팬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곤 했다.

또 일부 음반기획사는 1위를 하고자 음원과 음반 점수를 높이고자 사재기를 한다는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때 가요 프로그램의 순위제는 논란 과열로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이 폐지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순위제를 폐지했던 MBC TV '쇼 음악중심'과 2012년 순위제를 폐지한 SBS TV '인기가요'가 2013년 잇달아 이를 부활시켰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 중 '뮤직뱅크'와 '인기가요'는 순위제를 유지 중이며 '쇼 음악중심'은 지난해 11월 다시 폐지했다.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SBS MTV '더 쇼', MBC 뮤직 '쇼 챔피언' 등의 케이블채널은 순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순위제 도입과 폐지가 반복된 것은 1위 선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뿐더러 방송사와

일부 기획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음반보다 음원 점수 비율을 높이고,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시청자 투표 비율을 줄이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지만 공정성을 담보하긴 어려웠다.

실제 업계에서도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막론하고 순위제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적었다.

아이돌 그룹을 여럿 보유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나는 로그랭크마다 집계 원칙이 있지만 순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음원 사재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요즘은 팬들이 기획사의 음반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일정 시간에 한꺼번에 출고량이 집계될 경우 관련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순위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순위제가 폐지되면 긴장감이 떨어져 음악팬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쇼! 음악중심'과 '인기가요'는 순위제를 폐지하면서 몰입도가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는 근본적으로 순위제가 팬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대형 기획사 음반 본부장은 “지금은 팬들에게만 의미 있는 순위제여서 한층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실질적인 대중의 인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팬덤이 많은 아이돌 그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순위”라고 강조했다.

연습뉴스

## SBS '푸른 바다의 전설' 이민호·전지현 주연

'별그대' 작가 박지은 “두 배우 염두에 둔 작품” ... 오는 11월 방영

한류스타 이민호(29)와 전지현(35)이 스타 드라마 작가 박지은과 손잡는다.

두 사람은 오는 11월 SBS TV에서 방송되는 박지은의 '푸른 바다의 전설'(가제) 주연을 맡았다고 SBS가 30일 밝혔다.

SBS는 “‘푸른 바다의 전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어우야담에는 실존 인물인 협곡의 현령 김담령이 어부가

잡은 인어들을 바다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전지현이 출연한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SBS·2013~2014)로 주가가 급등한 박지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기대가 크다. 이민호의 TV 드라마 출연은 SBS TV '상속자들' 이후 3년 만이다.

제작사인 문화창고는 “박지은 작가가 작품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전지현과 이민호

전지현·이민호

를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설정했다”면서 “두 배우 역시 작가와 PD를 믿고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연출은 스타 PD 진형이 맡는다.



진 PD는 2011년 이민호가 주연한 SBS TV 드라마 '시티 헌터'를 비롯해 '주군의 태양'과 '닥터 이방인' 등을 만들었다.

연습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세기의 라이벌 미래를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숨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 튜닝생활제조	00 자동공부책상 위기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도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KBS 결집다큐멘터리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0 대타 맞선 프로젝트
12	35 해외결집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생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인생경의 사천식 해물 볶음과 양배추 비트 피클)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레미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보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크(재)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17:30 똥똥똥 보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니~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죽방령 멸치잡이)	20:40 다큐 오늘 (인도네시아 상어잡이) 20:50 세계테마기행 (지중해의 푸른 전설, 몰타 2부) 21:30 한국기행 (여행의 품격 2부 - 심장이 뛸 때 (타나라) 21:50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의 미래 - 민주주의의 미래)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서커스 가족 유랑단) 23:35 시대감각 24:0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1일 (음 4월 25일 癸丑)
子	48년생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현대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완벽하게 대비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72년생 강력한 후속의 손길이 뻗어올라. 84년생 많은 의미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8, 07	42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참채하게 된다. 54년생 깊이 있는 고통을 통해서 조심스런 행동을 해야겠다. 66년생 너무 거친 상태이니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78년생 상대는 몇 수 앞서고 있는 고수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4, 90
丑	49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니 의욕적으로 임해도 된다. 61년생 주저한다면 실가하는 길로 이어질 것임에 뻔하다. 73년생 생 배를수록 후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5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53	43년생 그동안 품어 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5년생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67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79년생 막혔던 바가 시원하게 툭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29
寅	50년생 거두어들이는 결과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풍요로움이 보인다. 62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74년생 이론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라. 86년생 정중동의 형태가 합리적인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4, 25	44년생 변화를 꾀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현재의 위치에서 강구하라. 56년생 감쪽 놀람 정도로 기분 일이 생길 수 있다. 68년생 현황에 맞게 조응하고 모색하라. 80년생 증폭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6, 58
卯	51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63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의문스러운 점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결함이 있다. 75년생 유지하자. 87년생 남은 좋지만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었다. 행운의 숫자 : 54, 66	45년생 지금 손질함이 가장 나올 것이다. 57년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해야겠다. 69년생 입체적이고 총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낫다. 81년생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2, 91
辰	40년생 이성을 따고 있으나. 52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심은 양호하리라. 64년생 돕는 이가 많아서 유리한 국면을 잘하게 되리라. 76년생 손조로 진행을 보인다. 88년생 뜻밖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76, 63	46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진다. 58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한다. 70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관계이다. 행운의 숫자 : 45, 22
巳	41년생 지나치다면 부담감을 주게 된다. 53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사가 순행하리라. 65년생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77년생 중용의 입장과 균형 잡힌 처세가 필수적이다. 89년생 기민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52, 32	47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59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71년생 특유의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83년생 기존의 것에 신선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08, 85